

큐래스 바디스(Cuirass Bodice)에 관한 연구

金文淑* · 吳賢男 · 金賢珠 · 柳珍景 · 金炫我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Cuirass Bodice

Moon-Suk Kim*, Hyun-Nam Oh, Hyun-Joo Kim,

Jin-Kyoung Ryu and Hyun-Aa Kim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Women's University*

Graduates School,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Women's University

目次

Abstract

I. 서론

II. 큐래스 바디스의 특성

III. 실물제작을 통한 연구

1. 초기 큐래스 바디스 :

1874-7년 데이 드레스

2. 중기 큐래스 바디스 :

1878년 데이 드레스

3. 후기 큐래스 바디스 :

1882-3년 디너 드레스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bodice of character is classification in three period. The Fitted bodice in bustle style is characteristic, and is named as Cuirass Bodice. The Cuirass Bodice form the ground work in modern costume.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background on the Cuirass Bodice, and is to analyze periodical character. The Method of This study refer to literature, used illustration, and make actually Cuirass Bodice.

I. 서론

빅토리아(Victoria) 시대¹⁾ 드레스의 바디스(Bodice) 특성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²⁾. 1

- 1)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던 시대(1837~1901년)로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으로 엄혀져 있으며 일반적인 룩(look)과 스타일(style)은 물론 의상에 배어있는 감정의 유사성이 유지되었던 여왕의 아들 에드워드디언(Edwardian) 시대까지 확장시키고자 한다.
- 2) 서울여자대학교 패션연구소 주최, [Past & Present ; 빅토리아 드레스 연구전]의 발표문에 수록된 내용, 1997.

기는 1837년부터 1870년까지의 크리놀린 시기의 바디스로 바디스가 허리선까지 내려오며 몸에 꼭 맞는 형태이며, 2기는 1870년 전후와 1890년대까지 나타난 벤틀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는 시기로 이 시기의 바디스는 크리놀린 스타일에서와 같이 몸에 꼭 맞는 형태이지만 길이는 허리선을 지나 힙라인(hip line) 또는 햄라인(hem line)까지 연장되어 길어졌다. 3기는 189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의 아우어글라스 스타일의 바디스로 안감으로 만든 언더 바디스(under bodice)는 몸에 밀착되었으나 겉감으로 만든 오버 바디스(over bodice)는 주머니 모양의 주름을 잡은 포취드(pouched) 효과를 주어 앞으로 돌출된 모양을 이루는 여유있는 형태이다.

특히 벤틀 스타일에 나타난 피티드 바디스(fitted bodice)를 특징적으로 '큐래스(Cuirass)'라고 칭하며, 이 시기의 바디스는 그 이전 시대와는 크게 다르게 발전적인 형태를 보였다. 즉 크리놀린 스타일에서 나타난 허리선까지만 내려오던 바디스의 길이는 허리선을 지나 힙까지 연장되었으며, 이로 인해 프린세스와 다아트가 이전시대에 비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티드 바디스의 형태는 현대적인 의상을 구성함에 있어 기본을 이루고 있으며, 형태적인 디자인 또한 현재의 의상디자인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현저히 찾아볼 수 있다.

큐래스 바디스는 그리크(Greek)시대부터 출현하였으며, 이는 군복으로 키톤(chiton)과 함께 입혀졌다³⁾. 초기 그리스의 큐래스는 동(銅)으로 되어 있었으나, 후에는 동판을 비늘처럼 겹치게 달고 있는 가죽 "코슬릿(corselet)"⁴⁾으로 바뀌게 되었다⁵⁾. 이와 같이 큐래스는 "가죽으로 만든 흉갑, 배갑으로 된 몸통 갑옷"⁶⁾이라고 정의한다. 이후 이러한 명칭은 바디스에 지칭되지 않았으나, 빅토리아 시대에 들어와서 특히 1870년대 중반 새롭게 출현하기 시작한 바디스에 대해 "큐래스

(Cuirass)"라는 명칭이 지칭되기 시작했다.

빅토리아 시대의 큐래스 바디스가 현대적 의상의 형성과 발전에서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 바디스에 대한 복식사 측면의 재조명은 거의 없으며, 현대 의상의 형태적인 구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현대 의상의 패턴개발에 관한 연구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이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이러한 연구활동이 현대패션 교육 연구의 핵심이 되는 지식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감성적인 측면의 발전에 있어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빅토리아 시대의 큐래스 바디스에 관한 시대, 문헌사적 배경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큐래스 바디스의 시기별 특성분석을 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빅토리아 시대의 일반적인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큐래스 바디스의 시기별 특성 분석을 위해 도상학적 접근법을 이용, 분석하였다. 또한 서울여자대학교 패션 연구소에서 직접 실물제작을 하고 전시회를 한 바 있는 큐래스 바디스를 사례중심으로 파악함으로써 이론적인 분석결과를 실제 확인하였다.

본 연구활동은 문헌에만 기초한 이론적인 연구에 국한하지 않았으며, 실물작업에 의한 실제 복원된 제작물을 직접 분석함으로써 얻어진 분석자료에 의한 것으로 보다 연구활동의 한계를 넓히며 분석단계를 재진단함으로써 새로운 논제 아이디어로 연구에 임하였다. 이상의 양면적인 연구방법에 추가적으로 검색을 함으로써 시대적인 디자인을 실태분석적으로 접근해 보았다.

큐래스 바디스의 형태분석에 있어서는 바디스 특성상 빅토리아 시대 중 1870년대에 나타난 것으로만 시기를 제한하였으며 도상검색을 위해서는 「Harper's Bazar」⁷⁾에 나타난 도상을 중심으

3) Douglas A. Russell, 『Costume History and Style』,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 New Jersey, 1983, p. 59.

4) 허리에 두르는 갑옷.

5) 김문숙, 『毛皮(T)』, 신라출판사, 1987, pp. 37-38.

6) Random 영한 사전

7) Stella Blum, 『Victorian fashion & costumes from Harper's Bazar(1867-1898)』, Dover Publications, Inc., New York, 1974.

로 하였다. 또한 사례 연구를 위한 실물 바디스는 Janet Arnold著의 「Patterns of Fashion 2」에 수록된 것 중 형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II. 큐래스 바디스의 특성

1873~75년 경에는 허리선 아래로 바디스의 형태가 피티드되기 시작한 큐래스 바디스가 나타났다.

당시 큐래스에 관한 명칭을 관련문헌을 통해 살펴보면, 큐래스 바디(Cuirass Body)⁸⁾, 큐래스 바스크(Cuirass Basque)⁹⁾, 큐래스 바디스(Cuirass Bodice)¹⁰⁾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큐래스 바디스의 출현시기는 각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lla Blum(1974)의 「Harper's Bazar (1867~1898)」에서는 1874년부터 1882년까지를 큐래스 바디스의 출현시기로 보고 있으며, Jannet Arnold의 「Patterns of Fashion 2」에서는 1873~75년, 특히 1874년을 가장 패셔너블한 스타일의 큐래스 바디스가 처음 출현하였던 시기로 보았고, Alison Gernshiem (1981)의 「Victorian & Edwardian Fashion」에서는 1870년대 중반부터 큐래스 바디스가 출현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가지 문헌을 참조로 빅토리아 시대 큐래스 바디스의 특성파악을 위한 시기를 1870년부터 1890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이는 문헌상 큐래스 바디스가 출현하기 시작한 전후 전환기(transition time)까지 연장하여 형태를 파악함으로써 빅토리아 드레스에서 현대 의상으로의 형태 전환에서 바디스 변화의 그 일맥을 찾아보고자 함에 근거하였다.

큐래스 바디스는 1870년대 前 크리놀린 스타일에서와 같이 몸에 피티드된 형태이지만 1870년대 중반 바디스는 허리선을 지나 힙선까지 연장되어 길어졌다. 이 시대의 바디스를 특징적으로 큐래스 바디스라고 칭하며, 밀착되는 토르소 바디스 형태를 형성하기 위해 다아트와 수직적 프린세스 라인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였다¹²⁾.

사용한 소재는 프론트 바디스(front bodice)를 강조하기 위해 단일소재로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2가지 이상의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소재는 타프타, 벨벳, 다마스크(damask), 파이유(faille) 등을 사용하였다. 주로 사용된 색채 또한 2가지 이상 사용되었으며, 단색이 대부분으로 노랑, 골든 베이지(golden beige), 아이보리 화이트, 회색, 검정, 옅은 파우더 블루(pale powder blue), 옅은 베이지(pale beige) 등이었다.

각 시기별 큐래스 바디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기 큐래스 바디스(1870~76년)

이 시기의 바디스는 허리선 아래로 바디스의 형태가 피티드하며, 이 피티드 형태를 이루기 위해 웨이스트 다아트(waist dart), 휘시-아이 다아트(fish-eye dart) 등 여러 개의 다아트와 프린세스 라인을 이용하였으며, 각 솔기에 본(bone)을 부착하여 이 시기의 특징인 내츄럴 형태(natural form)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의 큐래스 바디스는 전형적인 남성용 스타일의 재킷(plain masculine style jacket)을 이루며, 그 구조적 특성상 수직적 프린세스 라인의 재단에 의한 중심패널(center panel)과 사이드패널(side panel)로 구성되었다. 특히 중심패널을 사이드패널과는 다른 색상과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장식적인 효과

8) Stella Blum, *op. cit.*, 1974.

9) *Ibid.*, 1974.

Alison Gernshiem, 「Victorian & Edwardian Fashion」, Dover Publications, Inc. New York, 1981.

10) 곡선을 내기 위해 코르셋(corset)에 사용된 심을 의미하기도 하며, 상의와 허리선이 달린 짧은 스커트와 같은 페플럼(peplum)을 의미하기도 한다.

11) Stella Blum, *op. cit.*, 1974.

Alison Gernshiem, *op. cit.*, 1981.

Jannet Arnold, 「Patterns of Fashion 2」, Drama Books Specialists, New York, 1980.

Dianade Marly, 「The History of Haute Couture(1850~1959)」, BT Batsford Ltd., London.

12) 패션연구소 주희, 「Past & Present: 빅토리아 드레스 연구전」의 발표분에 수록된 내용, 1997.

와 함께 바스크(Basque) 형태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림 1>은 겨울용 폴로네이즈(polonaise)로 갑옷(armor)처럼 몸에 밀착되는 효과를 나타내도록 디자인된 큐래스의 변화된 형태이다. 검정색의 낙타털(black camel hair)로 허리와 소매를 장식하였고 검정 타이탄 브래이드(black titan braid)를 이용하여 허리의 앞판은 헤링본 형태로 만나도록 사선으로, 뒤판과 소매는 수평으로 함으로써 몸에 밀착된 형태를 강조하고 있다.

<그림 2>는 가을/겨울용 드레스로 실크로 된 언더스커트(under skirt)와 검정색의 캐시미어 오버드레스(black cashmere overdress)로 구성되어 있는 큐래스 바스크의 최신 스타일이다. 검정색 캐시미어로 된 큐래스 바스크는 실크자수로 장식되었고, 수직적 프린세스 라인에 의해 뒤판과 옆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뒷중심에는 본이 부착된 솔기가 있어 피티드한 바디스의 형태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림 1> Cuirass polonaise walking suit (1874).

(『Harper's Bazar (1867-1898)』, p.73)



<그림 2> Fall/winter dress(1875).

(『Harper's Bazar (1867-1898)』, p.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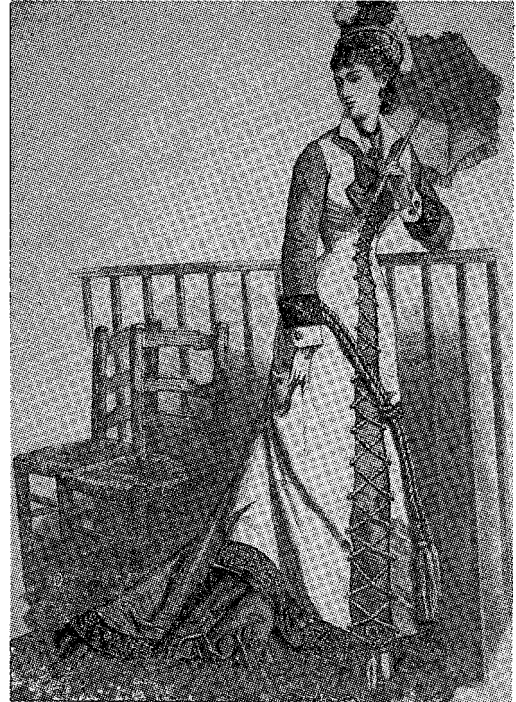
2. 중기 큐래스 바디스(1876~80년)

중기 큐래스 바디스는 초기 큐래스 바디스에서 진화된 형태로 바디스보다는 큐래스 형태를 이루며 단선이 땅에 닿는 드레스 형태로 발달되었다. 즉, 바디스와 스커트가 하나로 연결된 원피스 형태가 나타났다. 이 시기에도 피티드 형태를 이루기 위해 웨이스트 다아트, 프렌치 다아트와 수직적 프린세스 라인을 이용하여 그 특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힙선까지 본을 부착하였다. 특히 수직적 프린세스 라인에 의해 중심 패널과 사이드 패널이 구성되는 특징이 있다. 안감(lining)의 구조를 살펴보면 걸감과는 달리 힙선까지만 안감을 부착시켰다.

<그림 3>은 초기의 바디스 형태에서 많이 진화된 실크 드레스이다. 큐래스 형태(cuirass shape)를 이루며, 단선(hem line)이 땅에 닿는 원피스 형태의 드레스이다. 보다 피티드한 형태를 이루기 위해 웨이스트 다아트와 수직적 프린세스



<그림 3> Polonaise walking suit(1876).
(『Harper's Bazar (1867~1898)』, p.86)



<그림 4> Sea-side Toilette(1877).
(『Harper's Bazar (1867~1898)』, p.106)

라인에 의해 중심패널과 사이드 패널로 구성되었다.

<그림 4>는 노랑색 실크로 된 프린세스 드레스에 아이보리 화이트의 소매가 없는 캐시미어 폴로네이즈(ivory white cashmere sleeveless polonaise)로 구성되어 이중소재 및 배색으로 인한 바디스의 형태 강조가 돋보이는 중기 큐래스 바디스 형태이다. 이 바디스는 허리선이 바닥까지 연장된 형태이며, 또한 큐래스 바디스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웨이스트 다아트와 프린세스 라인을 이용하였다.

3. 후기 큐래스 바디스(1880~90년)

후기 큐래스 바디스는 시기적으로 버슬이 새로

와진 돌출부를 지닌 형태로 재등장하게 됨에 따라 바디스의 형태는 허리선을 지나 힙선까지는 피티드 하며, 그 이후는 스커트 뒷부분의 버슬을 강조하기 위해 스커트의 뒷부분을 향해 오버 스커트의 형태로 양 측면이 드레이프된 형태이다. 피티드한 형태를 위해서는 바디스 부분에 단단한 본이 각 솔기 즉, 다아트, 옆선, 및 프린세스 라인에 부착되었다¹³⁾. 특히 이 시대의 큐래스 바디스는 이전의 바디스와는 달리 중심패널의 구성 및 장식적 효과는 많이 보이지 않으며, 반면 자켓의 칼라를 형성하듯이 앞목 중심의 강조가 남아있는 포취드(pouched) 형태로 전환을 맞으며 플라스트론(plastron)¹⁴⁾의 이중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3) 김문숙·오현남, “실물제작을 통한 의상연구(I)”, 서울여자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연구논문집, 제4집, 1993, p.18.

14) 여자옷의 가슴장식, 풀먹인 남자용 셔츠의 가슴부분을 일컫는 것으로 갑옷의 강철제의 가슴 방어물 뜻하며, 밴드(band)나 웨이스트코트(waistcoat) 효과를 주기 위해 앞판에 삽입된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림 5>는 황색 브로케이드 새틴(yellow brocade satin)으로 제작된 후기 큐래스 바디스로 특히 앞판의 네크라인을 강조한 것이 큰 특징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앞판의 형태는 이후 피티드 한 형태에서 포취드(pouched) 형태로 전환을 맞게 될 것이다. 또한 바디스 뒤쪽의 비슬 돌출부를 강조하기 위해 오버스커트 형태를 이루어 앞에서 뒤를 향해 드레이프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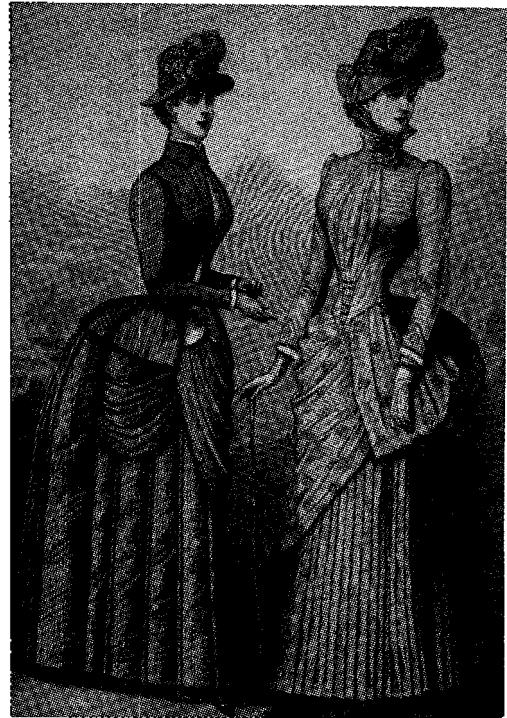
<그림 6>은 울로 된 것으로 드레이프된 오버스커트에 포인티드 플라스트론 바스크(pointed plastron basque)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이 플라스트론은 후기 큐래스 바디스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것으로서 피티드 한 형태를 강조하고 있다.

Ⅲ. 실물제작을 통한 연구

다음의 세벌의 드레스는 빅토리안 시대의 중기 스타일, 1870~90년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국에 소재한 박물관에 소장된 드레스를 실물제작한 것



<그림 5> Evening Toilette(1881).
(『Harper's Bazar (1867~1898)』, p.122)



<그림 6> Spring Costume(1884).
(『Harper's Bazar (1867~1898)』, p. 160)

이다. 큐래스 바디스의 초기·중기·후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제작하였으며, 패턴 및 그에 따른 바느질법은 Janet Arnold 著 [Patterns of Fashion 2]에 기초를 두었고, 이 시대의 특징적인 바느질법인 걸감과 안감을 함께 슬기에서 박는 통합 바느질법(together sewing)을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분석방법으로는 큐래스 바디스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바디스를 중심으로 바디스 길이의 변화, 밀착되는 토루소 바디스형태의 형성을 위한 다이어트와 수직적 프린세스라인, 본(bone)부착방법과 위치 등의 바디스 조합구성을 통해 시기별 큐래스 바디스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1. 초기 큐래스 바디스: 1874~7년 데이 드레스(영국 Gloucester Museum 소장)

이 드레스는 정교하게 골이 짜여 있는 타프타(silk shot taffeta)의 소재로 약간 광택이 있는

얇은 골든 베이지 (pale golden beige)와 검정 (black)의 색채를 사용한 초기 큐래스 바디스이다.

바디스의 길이가 이전시기와는 색다르게 허리선을 지나 힙선으로 연장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몸에 매우 타이트하게 맞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밀착되는 토르소 바디스 형태의 형성을 위해 수직적 프린세스 라인과 다아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직적 프린세스 라인에 의해 중심패널과 사이드패널로 이루어진 바스크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중심패널과 사이드패널에 벨벳과 실크와 같은 다른 소재, 옅은 골든 베이지 (pale golden beige)와 검정 (black)의 색채를 통한 이색대비 효과로 인하여 더욱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피티드한 밀착된 형태를 만들어 주기 위한 구성으로, 앞의 사이드패널에는 웨이스트다아트(waist dart, fish eye dart)와 사이드다아트(side dart)가 있으며, 뒤패널에는 중심 절개선과 2개의 프린세스 라인이 있다. 또한 앞판의 옆솔기와 프린세스 라인상에 본(bone)이 부착되어 있는데, 옆솔기에는 허리선까지, 앞패널에서의 프린세스 라인상에서도 허리선 아래까지 연장되어 본(bone)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본의 역할은 피티드한 바디스의 형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1/8인치 파이핑이 프린세스 솔기와 바디스 허리선 가장자리에 둘러감으로써 큐래스 바디스의 수직적 프린세스 라인의 외관을 돋보이게 함과 동시에 힙라인으로 길어진 바디스 길이를 더욱 잘 나타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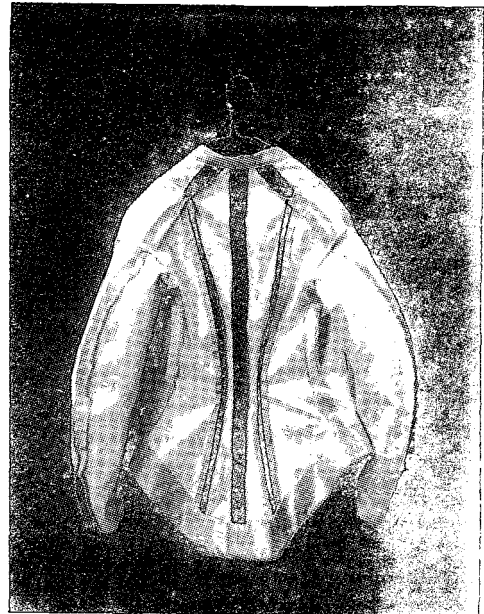
<그림 7>은 초기 큐래스 바디스의 구성을 잘 나타내주는 내부도이다.

2. 중기 큐래스 바디스 : 1878년 데이드레스 (Day Dress)

(Snowhill Manor 소장)

이 드레스는 초기 큐래스 바디스에 해당한 1874~7년의 것에 비해 진화된 중기 큐래스의 형태(Cuirass shape)이다.

바디스는 땅에 닿을 만큼 길어져 바디스와 원피스가 하나로 연결된 드레스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큐래스 바디스의 형태(Cuirass shape)를



<그림 7> 1874~7 데이드레스 내부도
(서울여대 패션연구소 제작)

이루고 있으며, 이는 안감이 허리선 아래 힙라인까지 달리도록 되어 있어 큐래스 바디스의 잔존을 볼 수 있다. 이 드레스는 몸에 꼭 맞도록 프린세스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 중심패널이 shaped front panel로 구성되어 있어 수직선상의 리니어라인(linear line)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초기 큐래스 바디스에서 보여진 중심패널과 사이드패널의 구성을 볼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와인색과 흰색의 스트라이프(Wine and white stripe) 색채를 사용하였지만, 프린세스라인을 따라 앞 중심패널에 와인 색상을 대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큐래스 바디스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몸에 밀착된 형태를 만들어 주기 위해 2개의 사이드다아트, 웨이스트다아트가 사이드패널에 있다. 또한 프린세스 패널에는 옆솔기 위치에 강한 본이 부착되어 있고, 이러한 본이 허리선 아래까지 연장되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밀착되는 큐래스형태를 만들어 주기 위한 구성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은 1878년 데이드레스의 내부도로서



<그림 8> 1878 데이드레스 내부도
(서울여대 패션연구소 제작)

본의 구성과 안감이 허리선 아래 힙라인까지 달리도록 되어 있어 큐래스 바디스의 잔존을 볼 수 있는 그림이다.

3. 후기 큐래스 바디스: 1882~3년 디너드레스(The London Museum 소장)

이 드레스는 후기 큐래스 바디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많은 변화를 볼 수 있다. 3/8인치 폭에 1/16인치 굵기의 새틴 스트라이프(satin stripe)가 있는 아이보리 색상의 실크(ivy silk)로 만들어지며 아이보리 색상의 망사(ivy net)와 레이스(lace)로 장식되어 있다.

바디스의 길이가 초기의 큐래스 바디스처럼 자연스러운 커브(natural curve)를 이루며 허리선을 지나 연장되어 있는 것은 같으나, 드레이프를 형성하면서 주름을 만들고 있으며 바디스 길이는 토르소 라인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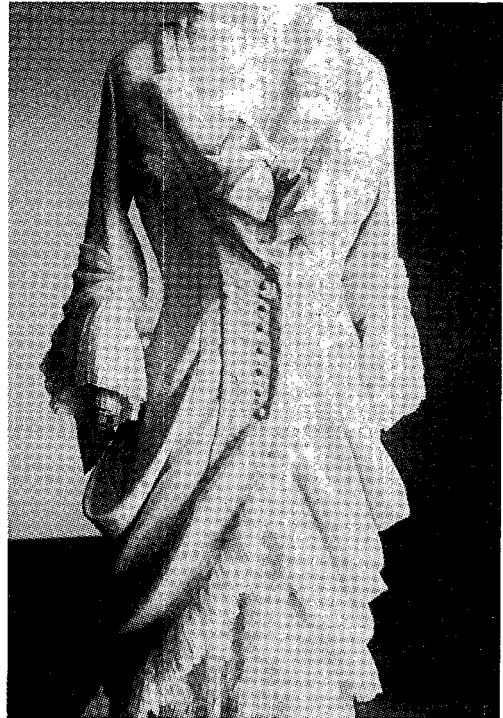
초기·중기에서 보여진 중심패널과 사이드패널의 구성은 없으며, 긴 토르소 다야트가 남아 있다. 허리선에서는 이 다야트의 끝부분을 풀어 만든 턱이 아래부분의 턱과 함께 이어져 뒷중심에

고정되면서 엉덩이 부분에 늘어지는 주름을 만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뒤편의 밀착시킨 형태를 만들어 주기 위한 구성으로 중심 절개선과 다야트와 2개의 프린세스 라인이 있다. 솔기위에 부착된 본은 바디스를 인체에 밀착시키고 있다. 또한 안쪽에 허리밴드로써 피터셰임밴드(peter-shame band)를 부착시킨 것은 몸매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몸에 밀착되도록 함으로써 내추럴 커브(natural curve)를 이루고 있다.

<그림 9>는 아트를 풀어 만든 턱이 드레이프를 형성하면서 주름을 만들고 있는 바디스의 모습이다.

IV. 결 론

빅토리아 시대의 큐래스 바디스에 관하여 도상학적 연구와 함께 사례 연구를 통해 특성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9> 1882~3 디너드레스의 드레이프를 형성하고 있는 바디스
(서울여대 패션연구소 제작)

‘큐래스 바디스’란 명칭은 빅토리아 드레스의 스타일 변화에 있어 버슬(Bustle) 시대, 특히 1870년에서 1890년 사이에 출현한 바디스에 대하여 특별히 지칭되었으며, 이 시기동안에 큐래스 바디스는 형태적 특성상 초기·중기·후기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큐래스바디스의 초기·중기·후기 공통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전시대, 즉 1850년대가 크리놀린 스타일의 풍성한 실루엣을 유지했던 것에 반해, 이 시기는 큐래스 바디스의 출현과 함께 내추럴 커브(natural curve)를 지닌 실루엣으로 전환하면서, 바디스의 길이는 허리선 아래로 길어지고 안체를 피티드한 형태로 만들었다. 이를 위해 다아트와 프린세스 라인이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다아트와 프린세스 라인의 사용방법에 있어 현대적인 패턴 기법을 엿볼 수 있다.

초기·중기·후기의 큐래스 바디스의 특성을 시기적으로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디스 길이의 변화를 특징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초기의 바디스의 길이는 이전시기인 크리놀린 스타일에서의 바디스보다 길어지면서 스타일 변화에 있어서 큰 전환을 볼 수 있었다. 즉 허리선 아래로 약 7인치 정도, 헐라인까지 연장되어 길어졌으며, 중기의 큐래스 바디스는 초기 큐래스 바디스에서 진화된 형태를 보여준다. 이는 큐래스 바디스라기보다는 큐래스형태(Cuirass shape)를 이루며 길이가 땅에 닿는 드레스 형태로 발달되었다. 후기 큐래스 바디스는 초기 큐래스 바디스와 같이 허리선을 내추럴 커브(natural curve)를 이루며 토로소라인까지 연장된 형태이다. 또한 이에 더하여 드레이프를 이용한 주름을 형성함으로써 뒤 버슬의 돌출부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큐래스 바디스에 연결되어 오버스커트 형태를 이루며 뒤 힙부분을 향하여 드레이프를 형성하고 있다.

둘째, 큐래스 바디스는 이 시기에 전형적인 단순한 남성용 스타일의 자켓을 이루며, 이러한 구조를 위해 수직적 프린세스라인을 중심으로 중심패널과 사이드패널로 구성되어져 있다. 특히 중심패널과 사이드패널은 다른 색상과 소재를 사용

함으로써 큐래스 바디스의 형태를 부각시키면서 함께 장식적인 효과도 나타내준다. 후기 큐래스 바디스는 초기·중기 큐래스 바디스와는 다르게 중심패널을 이용한 구성 및 장식적 효과는 비교적 출현 빈도수가 적은 반면, 자켓의 칼라부분을 형성하면서 앞 목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심패널의 형태는 이후 피티드 형태에서 포취드(Pouched) 형태로 스타일이 전환하게 되면서 플라스트론(Plastron)의 이중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현대적 의복의 형태적 변화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이후 빅토리아 드레스가 중요한 구조적 바느질법상의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형태적 구성에 대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초기와 중기 큐래스 바디스에서는 공통적으로 패턴상의 구성이 프린세스 라인을 이용한 재단법을 이용하여 중심패널과 사이드패널로 이루어지며, 보다 피티드한 형태를 위해 사이드패널에는 사이드다아트가 있다. 그런데 버슬이 변함에 따라 초기의 바디스 형태에서 중기에는 드레스 형태로 변화를 보이며, 바디스와 스커트가 하나로 연결되어 원피스로 된 버슬스타일을 형성시키기 위해 뒤 드레스 패턴이 복잡한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후기 역시 중기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패턴 구조를 이루었는데, 앞 바디스는 다아트 또는 프린세스 라인을 계속 이용하고 있으나, 턱이 바디스에서 연결되어 드레이프지면서 오버스커트를 형성하도록 이루어진다. 뒤 바디스는 프린세스 라인을 이용하여 더욱 피티드한 형태를 이루도록 하였다.

이상은 빅토리아시대 큐래스 바디스에 관한 연구결과로 복식을 연구 개발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식사적으로 또는 형태 구성상(패턴 바느질법), 장식개발 등 여러 면에서 가치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시기적 특성상 빅토리아 초기에서 중기·후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서 또는 근대적 복식에서 현대적 복식으로 변화하는 전환기에서 출현한 바디스의 연구를 함에 있어 시기적 제한과 전혀 미발표된 연구 표제에 의한 참고 문헌의 부족에 제한점이 있었다.

참고문헌

1. 서울여자대학교 패션연구소 주최, [Past & Present : 빅토리아 드레스 연구전]의 발표문에 수록된 내용, 1997.
2. Douglas A. Russell, *Costume History and Style*,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83, p.59.
3. 김문숙, 「毛皮(I)」, 신라출판사, pp.37-38, 1987.
4. Random 영한 사전
5. Stella Blum, *Victorian fashion & costumes from Harper's Bazar(1867~1898)*, Dover Publications, Inc, New York, 1974.
6. Alison Gernshiem, *Victorian & Edwardian Fashion*, Dover Publications, Inc. New York, 1981.
7. Jannet Arnold, *Patterns of Fashion 2*, Drama Books Specialists, New York, 1980.
8. Dianade Marly, *The History of Haute Couture(1850-1959)*, BT Batsford Ltd London.
9. 패션연구소 주최, 《Past & Present:빅토리아 드레스 연구전》의 발표문에 수록된 내용, 1997.
10. 김문숙·오현남, “실물제작을 통한 의상연구(I)”, 서울여자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연구논문집, 제4집, 1993, p.18.